

돼지고기 수입증가와 양돈산업 변화

돼지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돼지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격하락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돼지 사육두수는 올 6월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9월 들어서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육두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홉 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이 인하되고, 가격조건이 매우 좋아 사육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양돈농가들이 후보돈과 자돈 입식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돼지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년후 생산과잉에 대비하여 농가들에게 입식 자제를 조언한다.

국내 돼지사육두수가 증가한다 함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양(수입량)과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양(수출량)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국내 돼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후지를 제외한 전부위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에는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즉, 나가는 양은 적어지고 들어오는 양은 많아졌다.

그렇더라도 돼지고기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 수입초과 부분을 흡수해 준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작년의 경우 국민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쇠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돼지고기 소비가 무려 5.5%나 늘어났다. 즉, 육류 소비 대체현상이 발생하여, 돼지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경험을 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수입량이 늘고 수출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돼지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과열입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원)



국내 돼지사육두수가 증가한다 함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양(수입량)과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양(수출량)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국내 돼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후지를 제외한 전부위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에는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즉, 나가는 양은 적어지고 들어오는 양은 많아졌다.

것 같다.

앞으로 돼지고기 수급상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수급에 관련된 변수들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가격과 국내가격간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환율이 안정세에 있다는 것 또한 작용하였을 것이다. 올 5월 중순 돈가는 지육 kg당 3,200원 이상 수준이다. 과거 어느 때도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앞으로 돈가가 얼마나 높게 유지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증가 현상은 올 6월부터나 돈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수급 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돈가를 크게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비육돈 출하와 자돈사육 현황, 행락철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돼지가격은 10월 정도까지 3,100~3,2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국제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의 비육돈 파운드당 가격의 변동을 살펴보면, '94년

39.6달러, '95년 41.7달러, '96년 53.4달러로 3년간 줄곧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들어서서 '97년 51.3달러, '98년 31.5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98년 4분기 가격은 19.5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상승기에 접어들어 올해의 돼지고기 가격은 34~36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37.4달러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돼지고기 수입 유통업체들이 돼지고기 가격을 4월에 kg당 50~100원 인상하였고, 앞으로도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러한 국제가격 상승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올해 WTO가입에 앞서 돈육시장과 우육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면 이는 수출단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가격 상승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수입가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수출이 왜 감소하였는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 보자. 돼지가격 상승으로 수출용 원료돈의 구매가격도 크게 올라 수출업체의 채산성은 악화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출혈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지콜레라가 근절된다는 낙관적인 전망 일 뿐이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진행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국내가격이 폭락할 우려도 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하락하면 사육두수가 줄어들지만, 이제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육두수가 줄어

들지 않았다. 이는 가격하락이 농가소득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어 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 확보를 위해 사육두수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즉, 농가는 일정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두수를 늘려야 할지 유지할지 또는 줄여도 될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수출지육 구매단가가 kg당 3,000원을 넘어갈 경우 냉장육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이윤 확보는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돼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냉장육 수출이 무의미해진다. 그런데, 적어도 올해 안에는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수출대상국인 일본에서는 돼지콜레라 등의 문제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돼지 콜레라 발생지역에서의 수입을 중단하려는 움직임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향후 대일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조건과 국내 수급조건을 종합해 볼 때, 올해 내에 돼지 및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소지는 적지만, 연말 이후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수입량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돼

경제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하락하면 사육두수가 줄어들지만, 이제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육두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가격하락이 농가소득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어 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 확보를 위해 사육두수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소득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값인데, 경영비는 다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진다. 특히, 전업농의 경우 고정비의 부담이 큰 데, 고정비를 줄이려면 사육두수를 늘려 시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 결국, 경영비보다 판매가격이 높은 한

많은 두수를 길러야 최대의 소득이 확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농가는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돼지를 기르려 하고, 이 때문에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앞으로 양돈산업의 발전은 질병근절과 함께 사육두수 조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양돈